

초등학교 학부모의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체험에 미치는 영향

안 현영* · 이 걸**

요 약

본 연구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체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가족여행의 행태를 분석해 보면, 개별자유여행이 가장 많았으며, 여행 횟수는 1-3회, 여행 기간은 1박 2일, 정보원천은 포털 사이트/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부모의 교육열은 본질적 교육열과 수단적 교육열로 분류되었으며, 국내가족여행의 체험은 교육적 체험,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 그리고 오락관계적 체험의 4개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셋째, 부모의 본질적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체험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질적 교육열은 교육적 체험,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 그리고 오락관계적 체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수단적 교육열은 일탈적 체험과 오락관계적 체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체험 활동 간의 이론적 구조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본질적 교육열, 수단적 교육열, 교육적 체험,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 오락 관계적 체험, 4Es, 국내가족여행

* 대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외래교수. E-mail: goodbye66@hanmail.net

** (교신저자) 수성대학교 호텔관광과 교수. E-mail: lg7134@sc.ac.kr

I. 서론

교육과 관광은 21세기 지식 기반경제를 주도할 핵심요소로서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유사한 학습의 목표를 지닌다(한일미래정책연구원, 2009). 관광 활동은 자녀에게 지적 성장과 인격적인 성장을 가져오며, 신체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지대하다(이지은, 2001). 또한 관광 활동은 단체 여행객과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은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경제성장을 가져온 강력한 추진력이다. 교육열은 학벌주의 사회와 과열된 교육열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지배적인 교육열 현상과는 구별된다. 교육열은 심리적 에너지로 자녀 성취욕구라는 본능적이고 보편적 속성을 지니지만, 교육열 현상은 문화생태환경의 다양한 매개요인들과 결합하면서 제도적이고 정책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사회일반에서 비판받는 영역이다(이기석, 2013).

대학 입학에 초점을 둔 단순 암기형 반복학습에 치중하였던 교육열 현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교육선택 행동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교육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이기석, 2013). 다양한 교육선택 행동 중의 하나가 교육관광이며, 가족체험여행이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부모를 행동하게 만드는 에너지이며, 관광활동은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김경원, 2009). 수학여행이나 수련여행의 공적 교육관광과 가족여행과 개별여행의 사적 교육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가족여행은 가구여행과 국내여행의 정의를 통합하여 ‘표본 가구 내 동거하고 있는 2인 이상 동행한 여행으로 행정구역상 현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이다(2015년 국민여행실태조사, 2016), 국내가족여행의 시기는 주말(62.4%)이었으며, 여행의 목적은 여가/위락/휴가(45.6%)으로 참가하였다. 여행의 정보원천은 가족/친지(38.0%)가 중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으며, 여행지별 가구여행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의 만족도가 높았다. 인천광역시와 제주도(2인 가구),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3인 가구)의 체험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았으며, 대전광역시와 제주도(4인 가구), 경기도와 부산광역시(5인 가구)의 체험 프로그램도 만족도가 높았다.

국내가족여행과 여행 중의 체험 활동은 부모의 교육열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부모의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체험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가족여행의 행태를 분석하였으며, 둘째, 부모의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체험 활동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Pine과 Gilmore의 4Es를 이용하였다. 셋째, 국내가족여행에 있어서 체험 활동을 구성하고,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선행 연구의 검토

1. 부모의 교육열

한국의 교육현상을 대변하는 교육열은 일반적으로 학부모 교육 참여에 대한 열망이자 에너지를 의미한다(이종각, 2000). 열망은 욕구의 상태변인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며, 교육열망은 자녀의 교육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서 자녀가 높은 교육열망을 갖도록 증대한 영향을 미친다(박다례, 2010). Kao & Tienda(1998)은 부모의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여부가 자녀교육의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육열은 개인의 심리적 차원과 개인의 행위 차원, 그리고 사회적 현상의 차원에서 정의되었다(서근원, 2008; 이종각·김기수, 2005).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교육열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욕구로 정의하며,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동기 체제(이종각, 2003)이다. 개인의 행위차원의 교육열은 경험적으로 확인가능한 행위에 한정하며, 교육에 대한 열망과 교육을 위한 투입행위(김영화 외, 1994)를 의미한다. 사회적 현상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교육열은 한 사회가 드러내 보이는 특징적인 현상이며, 교육과 관련된 행위, 문화적 지식, 사회구조적 맥락이 상호 관련된 현상(김희복, 1992)로 정의된다.

이기석(2013)은 생애 전체를 통해 발현되는 학부모의 교육을 통한 자녀 성취 욕구 또는 자녀교육 투자 동기로 교육열을 정의하였으며, 여섯 가지 측면에서 영역이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교육열 현상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참여자 수의 확산과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학원, 과외, 해외 등으로 확장되는 범위의 확산이 존재한다. 또한 대상의 확산은 학교의 교과 등과 같이 제한된 지식이나 기술 중심에서 예술, 신기술, 외국어 등으로 교육열이 발휘되는 대상이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상급학교의 진학에서 취업의 영역으로 확산의 현상도 존재하며, 전 일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시간의 확산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교육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학교 수학을 포기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교육열 포기자의 확산도 존재한다.

교육열에 대한 양적 선행연구로 현주 외(2003)는 학부모와 학생 2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열의 영향요인으로 교육경험, 삶의 만족,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 자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 사회현실 지각, 자녀교육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과 심리 상태로 분석하였다. 교육열에 대한 실증조사 연구는 자녀 교육지원 활동에 초점을 둔 심미옥(2003)의 연구, 교육열 감사도구를 개발한 김정화(2004)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박현정 외(2006)는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참여, 지원행동까지 포함하여 교육열을 조사하였으며, 김양분 외(2009)는 교육비와 교육적 지원까지 포함하여 교육열을 연구하였다.

교육열에 대한 질적 선행연구는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적 계층에 관한 오경희·한대동(2009)의 연구와 이두휴(2008)의 연구가 면접 조사형태로 수행되었다. 가정 학교를 실천하는 부모에 관한 연구(서덕희, 2002), 기러기 가족의 교육열에 대한 연구(최양숙, 2005)와 글로벌 모 자녀 가족에 대한 연구(조은, 2003; 조혜영 외, 2007)가 수행되었다. 이기석(2013)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열에 대한 편향을 극복하고 긍정적 교육 자원화를 이루기 위하여 행동경제학 원리에 근거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규범적 학교만능주의 정책에서 학부모의 현실요구에 기반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관 주도의 교육열 억제정책에서 학부모 중심의 선택형 교육열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정적 학교교육열 프레임을 긍정적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열은 생애 전체를 통해 발현되는 학부모의 교육을 통한 자녀 성취욕구 또는 자녀 교육투자의 동기(이기석, 2013)로 정의하였으며, 본질적 교육열과 수단적 교육열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윤정혜·나영미, 1999). 안현영(2015)은 본질적 교육열과 수단적 교육열로 구분하여 편의지향적 속성, 체험활동적 속성, 체험 자원적 속성, 지역특성적 속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2. 국내가족여행의 4Es

체험은 추상적이지 않고 상품, 재화 및 서비스의 단계를 거치는 구체적인 재화이다(김승리·인옥남, 2014). 체험은 몸소 경험함으로써 어떤 외부의 자극에 노출된 사람이 자극에 반응하면서 마음과 몸으로 느끼는 것이며(김영주, 2004),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험은 기능적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감각적, 인지적, 행동적 그리고 관계적 가치를 제공한다(이연화, 2011).

여행 체험은 개인 차원에서 개인이 몰두하는 이벤트이며, 여행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위 개념으로서 고객들이 서비스 제공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겪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체험이다(Pine & Gilmore, 1999). 여행 체험은 여행 경험의 일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객의 물리적이고 자발적 참여활동으로 인해 유발되는 관광객의 심리적 상태로서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다(한숙영·엄서호, 2005).

체험 영역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오락, 교육, 가치몰입, 일탈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한숙영·엄서호, 2005; Pine & Gilmore, 1998, 1999). 개인적 요인은 적극적인 참여와 소극적인 참여 정도를 의미하며, 환경적 요인은 환경이 소비자가 체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오락적 체험은 소극적 참여와 환경적 설비가 낮은 수준으로 오락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체험은 환경적 설비 수준은 낮지만 관광객의 적극적 참여로 다양한 종류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체험이다. 몰입적 체험은 관광객이 참여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관광객의 참여는 소극적인 체험 영역을 의미하며, 일탈적 체험은 완벽한 환경적 설비를 갖추며, 관광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체험 영역을 의미한다.

체험의 영역과 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기완·김남조(2007)는 감각자극성, 유대관계성, 지식교육성, 일상탈출성의 4개 요인으로 규명하였으며, 전귀연 외(2010)는 경주 지역을 방문했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체험의 종류를 교육체험, 미적 체험, 엔터테인먼트 체험, 현실도피적 체험으로 구분하였다. 이태희 외(2012)는 테마파크의 체험 요소로 엔터테인먼트, 현실도피, 미적, 교육 체험으로 구분하였으며, 김현·한은경(2014)은 영상콘텐츠 브랜드 체험변인으로서 기존의 교육적 체험과 현실도피적 체험, 엔터테인먼트적 체험과 미적 체험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김경희·허용덕(2015)은 교육체험, 심미체험, 오락체험 일상탈출 체험으로 체험영역을 구분하였다.

김승리·인옥남(2014)은 오락, 교육, 심미, 일탈의 4개 요소 중에서 심미적 체험 요소와 일탈적 체험 요소가 도보관광객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도보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심미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가족여행의 체험은 일상생활과 상이한 색다른 체험을 위하여 국내 여행을 선택하고(양봉석, 2006),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지향성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송화성, 2005), 교육적 체험,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 오락관계적 체험으로 구분하였다.

Ⅲ.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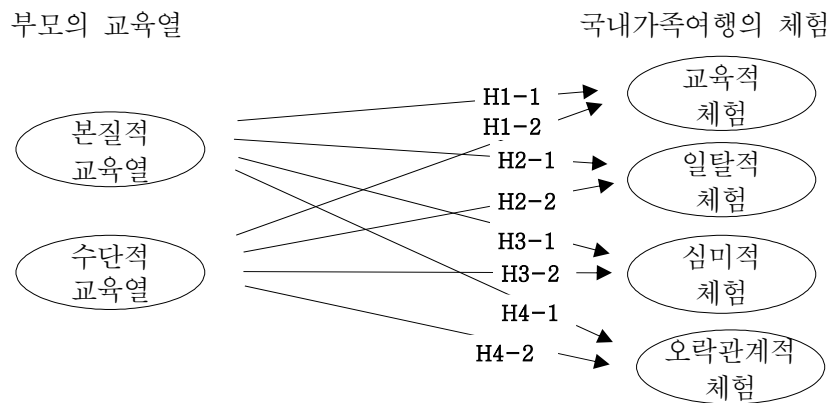
1. 연구 모형 및 가설의 설정

조성민(2001)은 학부모의 교육열이 학교 교육과 사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교육

행동을 표출시키며, 수동적인 교육열에 국한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길미경(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교육 활동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 가족 여행을 많이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송재일·손대현(2004)은 지역 축제 방문자의 자녀 교육열과 행사프로그램의 만족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지역 축제의 방문자의 자녀교육열에 따라 도구적 교육지향 집단과 본질적 교육지향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본질적 교육지향 집단이 도구적 교육지향 집단보다 행사프로그램의 만족 수준이 높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김철원·윤혜진(2006)도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축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자녀를 동반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효과에 관심을 지니며, 자녀의 지적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에 높은 수준의 만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김경원(2009)은 인격지향 교육열과 성공지향 교육열로 구성된 교육열은 교육관광상품 선택속성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인격지향 교육열과 성공지향 교육열로 구성된 교육열의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육관광상품 선택속성 만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같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가설1 부모의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교육적 체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부모의 본질적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교육적 체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부모의 수단적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교육적 체험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2 부모의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심미적 체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부모의 본질적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심미적 체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부모의 수단적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심미적 체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부모의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일탈적 체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부모의 본질적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일탈적 체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부모의 수단적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일탈적 체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부모의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오락관계적 체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부모의 본질적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오락관계적 체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부모의 수단적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오락관계적 체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작적 정의와 척도

부모의 교육열은 생애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학부모의 교육을 통한 자녀 성취욕구 또는 자녀 교육투자의 동기(이기석, 2013)으로 정의하였으며, 본질적 교육열과 수단적 교육열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윤정혜·나영미, 1999). 본질적 교육열은 자녀의 성장을 위한 학습 기회의 획득을 위한 교육열이며,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보이는 열의로 정의하였다. 수단적 교육열은 출세 수단의 획득을 위한 교육열이며,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도달하기 위하여 더 높고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로 정의하였다(안현영, 2015). 본질적 교육열은 윤정혜·나영미(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녀의 적성과 소질개발에 대한 열의가 있다’를 포함한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수단적 교육열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길 원한다’를 포함한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국내가족여행의 체험은 일상 생활과 상이한 색다른 체험을 위하여 국내 여행을 선택하고 여행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지향성 행동(양봉석, 2006; 송화성, 2005)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오락, 교육, 가치몰입, 일탈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적 체험은 여행 활동을 통하여 지식을 획득하거나 학습에 관련된 체험을 한다고 지각하는 정도이다. 심미적 체험은 여행 활동에서 주로 시각을 통해 환경체험을 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오락관계적 체험은 여행 활동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감을 통해 감각적인 체험을 하면서 쾌락적 즐거움과 유희적 기쁨을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일탈적 체험은 여행 활동의 체험을 통하여 여행 목적지에 몰입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Oh, et al, 2007; 하동현, 2009).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내가족 체험 활동의 측정 문항은 Pine & Gilmore(2000, 2002)의 4개의 체험 영역과 하동현(2009, 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2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설문 문항	문항 수	척도 출처
부모의 교육열	6	안현영(2015), 김경원(2009) 윤정혜 · 나영미(1999)
국내가족여행의 체험	20	안현영 · 황정주(2015), 하동현(2012, 2009) 한숙영 · 엄서호(2005) Pine & Gilmore(2002, 2000)
국내가족여행의 행태적 특성	6	
인구통계적 특성	4	

3. 조사 방법과 분석

본 연구는 편의 표본 추출방법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와 수성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2 곳을 선정하여 4학년, 5학년,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5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다.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22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310부의 설문지를 통계자료로 이용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는 SPSS 20.0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은 응답자의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인 실증조사의 통계적인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를 위한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변수들을 요인으로 규합하기 위해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은 부모의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체험에 미치는 영향관계 검증에 위해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표본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부모의 성별은 여성이 266명(85.8%)을 차지하였으며, 40-49세 이하의 연령이 254명(81.9%)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의 성별은 여학생이 165명(53.2%), 남학생이 145명(46.8%)으로 파악되었으며, 자녀의 학년을 묻는 항목에서 4학년은 125명(40.3%), 6학년은 98명(31.6%), 5학년은 87명(28.1%)으로 분석되었다. 여행 행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개별자유여행은 235명(82.7%)이었으며, 여행횟수에 대한 응답은 1년간 1-3회가 138명(44.5%)로 가장 많았다. 여행기간은 153명(53.9%)이 1박 2일이었으며, 국내가족체험여행의 정보원천에 관한 질의에서 포털 사이트/커뮤니티가 101명(35.6%), 지인의 추천이 65명(22.9%), 기관 홈페이지가 41명(14.4%)로 분석되었다.

<표 2> 표본 및 여행행태적 특성

(N=310명)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44	14.2	자녀 성별	남	145	46.8
	여	266	85.8		여	165	53.2
연령	20-29세 이하	3	1.0	자녀 학년	4학년	125	40.3
	30-39세 이하	35	11.3		5학년	87	28.1
	40-49세 이하	254	81.9		6학년	98	31.6
	50-59세 이하	17	5.5	1인당 여행 경비	3만원 이하	18	6.3
	60세 이상	1	0.3		6만원 이하	66	23.2
여행 형태	개별자유여행	235	82.7		15만원 이하	32	11.3
	부분단체여행	25	8.8		15만원 초과	98	34.5
	전체단체여행	18	6.3		정보 원천	TV/라디오	25
	기타	5	1.8	신문/잡지		7	2.5
여행 횟수	없다	26	8.4	기관 홈페이지		41	14.4
	1회-3회	138	44.5	포털사이트/커뮤니티		101	35.6
	4-6회	71	22.9	개인블로그/홈페이지		28	9.9
	7-9회	32	10.3	관광홍보책자	7	2.5	
	10회 이상	43	13.9	지인의 추천	65	22.9	
여행 기간	당일	54	19.0	기타	10	3.5	
	1박2일	152	53.5				
	2박3일	67	23.6				
	3박4일	7	2.5				
	4박5일	2	.8				
	5박이상	2	.7				

전체 N=310명, 여행횟수를 제외한 응답자는 N=284명(여행경험이 없는 26명 제외)

2. 교육열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성 검증

교육열에 대한 측정 척도는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교육열에 대한 6개 문항은 본질적 교육열과 수단적 교육열로 요인화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895, .827로 분석되었으며, 총분산설명력은 79,999%이며, KMO는 .853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성과 타당도는 존재하였다.

<표 3> 부모의 교육열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

측정항목	요인 적재치	Eigen value	분산설명력	Cronbach's α
요인1 : 본질적 교육열				
자녀의 적성과 소질 계발에 대한 열의가 있다	.884	2.683	44.719	.895
자녀의 인성, 인품, 인격적 성숙에 대한 열의가 있다	.870			
자녀의 지적육구 충족/자아실현 성취에 열의가 있다	.848			
요인2 : 수단적 교육열				
자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길 원한다	.877	2.117	35.279	.827
자녀의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열의가 있다	.829			
자녀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열의가 있다	.670			
총분산설명력			79.999	
KMO			.853	
유의 확률			.000	

3. 국내가족여행 4Es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성 검증

국내가족여행 체험의 척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국내가족여행의 체험 영역은 2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4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심미적 체험은 6개 문항으로, 교육적 체험은 5개 문항으로, 일탈적 체험은 5개 문항으로, 오락관계적 체험은 4개 문항으로 적재되었다. 교육적 체험과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을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요인명을 부여하였지만, 오락 관계적 체험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오락적 또는 엔터테인먼트 체험으로 명명하는 것보다(Pine & Gilmore, 1998) 오락적인 내용 외에도 여행체험의 관계자나 다른 여행객과의 교제도 포함되므로 오락관계적 체험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심미적 체험은 .862, 교육적 체험은 .832, 일탈적 체험은 .836, 오락관계적 체험은 .819의 Cronbach's α 값으로 분석되었다. 총분산설명력은 63.310%이며, KMO는 .889로 분석되어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도는 존

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국내가족여행의 체험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측정항목	요인 적재치	Eigen value	분산 설명력	Cronbach's α
요인1 : 심미적 체험				
체험 관광지에서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733	3.551	17.754	.862
나의 자녀는 여행목적지에 있는 것만으로도 유쾌하였다	.679			
여행목적지의 환경은 매력적이다	.669			
여행목적지의 환경은 기쁨을 제공하였다	.669			
나의 자녀는 체험 프로그램에 몰입한다	.617			
여행목적지의 환경은 방문객을 배려한 공간이다	.598			
요인2 : 교육적 체험				
자녀에게 여행의 체험은 교육적이다	.809	3.412	17.061	.832
여행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녀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744			
여행지에서의 체험은 자녀의 지식을 풍부하게 하였다	.681			
나의 자녀는 체험을 통하여 학습하였다.	.670			
나의 자녀는 체험 여행을 통하여 학습하였다	.556			
요인3 : 일탈적 체험				
나의 자녀는 여행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한다	.848	3.113	15.567	.836
나의 자녀는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839			
나의 자녀는 여행하는 동안 평소의 일상생활을 잊어 버린다	.711			
나의 자녀는 여행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상상한다	.703			
나의 자녀는 여행을 통하여 현실에서 탈피한다	.559			
요인4 : 오락관계적 체험				
나의 자녀는 관광지의 주민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826	2.586	12.928	.819
나의 자녀는 다른 여행객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800			
나의 자녀는 여행 중 주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진다	.717			
나의 자녀는 여행 관계자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다	.513			
총분산설명력		63.310		
KMO		.889		
유의 확률		.000		

3. 가설의 검증

1) 가설 1의 검증

부모의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교육적 체험에 관한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본질적 교육열은 F값이 39.806, 유의도는 .000로 나타나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² 은 .206, B값이 .364이며, t값은 6.044로 분석되었으며, 유의수준 1%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수단적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교육적 체험은 유의도가 .186로 분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므로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표 5>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교육적 체험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 속 변 수				
	교육적 체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B	표준오차	β		
(상수)	2.000	.208		9.623	.000
본질적 교육열	.364	.060	.395	6.044	.000**
수단적 교육열	.074	.056	.087	1.326	.186
R ² = .206 Adjusted R ² = .201 F = 39.806 p = .000					

* $p < .05$, ** $p < .01$

2) 가설 2의 검증

부모의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심미적 체험에 관한 가설 2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본질적 교육열은 F값이 41.209, 유의도는 .000로 나타나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² 은 .212, B값이 .382이며, t값은 6.371로 분석되었다. 유의도는 .000로 나타나 유의수준 1%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수단적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심미적 체험은 유의도가 .297로 분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므로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표 6>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심미적 체험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 속 변 수				
	심미적 체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B	표준오차	β		
(상수)	2.042	.207		9.856	.000
본질적 교육열	.382	.060	.415	6.371	.000**
수단적 교육열	.058	.056	.068	1.046	.297
R ² = .212 Adjusted R ² = .207 F = 41.209 p = .000					

* $p < .05$, ** $p < .01$

3) 가설 3의 검증

부모의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일탈적 체험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본질적 교육열은 F값이 10.405, 유의도는 .000로 나타나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² 값은 .064, B값이 .163이며, t값은 1.981로 분석되었다. 유의도는 .048로 나타나 유의수준 5%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수단적 교육열은 B값이 .150이며, t값은 1.960로 분석되어 가설 3-2도 채택되었다.

<표 7>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일탈적 체험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 변수				
	일탈적 체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B	표준오차	β			
(상수)	1.771	.285		6.226	.000
본질적 교육열	.163	.082	.141	1.981	.048*
수단적 교육열	.150	.076	.139	1.960	.050*
R ² = .064 Adjusted R ² = .058 F = 10.405 p = .000					

* $p < .05$, ** $p < .01$

4) 가설 4의 검증

부모의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오락관계적 체험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본질적 교육열은 F값이 26.530, 유의도는 .000로 나타나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² 값은 .148, B값이 .222이며, t값은 3.117로 분석되었다. 유의도는 .002로 나타나 유의수준 1%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수단적 교육열은 B값이 .210이며, t값은 3.176로 분석되어 가설 4-2도 채택되었다.

<표 8>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오락관계적 체험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 변수				
	오락관계적 체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B	표준오차	β			
(상수)	1.585	.246		6.435	.000
본질적 교육열	.222	.071	.211	3.117	.002**
수단적 교육열	.210	.066	.215	3.176	.002**
R ² = .148 Adjusted R ² = .42 F = 26.530 p = .000					

* $p < .05$, ** $p < .01$

V. 결론 및 시사점

부모의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체험 활동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의 결과와 이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행 행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개별자유여행은 235명(82.7%)이었으며, 여행 횟수에 대한 응답은 1년간 1-3회가 138명(44.5%)로 가장 많았다. 여행 기간은 153명(53.9%)이 1박 2일이었으며, 국내가족체험여행의 정보원천에 관한 질의에서 포털 사이트/커뮤니티가 101명(35.6%), 지인의 추천이 65명(22.9%), 기관 홈페이지가 41명(14.4%)로 분석되었다. 국내가족여행의 형태로 개별자유여행이 주된 행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측정적도에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열은 본질적 교육열과 수단적 교육열로 요인화되었으며, 국내가족여행의 체험은 교육적 체험,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 그리고 오락관계적 체험의 4개로 요인화하였다. 체험에 관한 선행 연구(전귀연 외, 2010; 김현·한은경, 2014; 김경희·허용덕, 2015)와는 상이하게 엔터테인먼트 또는 오락적 체험으로 명명하지 않고 오락관계적 체험으로 명명한 이유는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인명의 개념을 확대하였다.

셋째, 부모의 교육열과 국내가족여행의 체험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질적 교육열이 교육적 체험,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 그리고 오락관계적 체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단적 교육열은 일탈적 체험과 오락관계적 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망이 국내가족여행의 체험 활동 간의 이론적 구조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넷째, 교육열의 형태에 따라 체험활동에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열에 대한 세분화된 이론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유용한 분류하는 점도 이론적으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관리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체험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열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국내가족여행의 체험활동의 프로그램 구성과 홍보 전략에서 부모의 교육열에 초점을 둔 소구전략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부모의 교육열 중에서 본질적 교육열은 국내가족여행의 교육적인 체험과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 오락관계적 체험 활동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본질적 교육열을

초점을 둔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체험 프로그램의 효과도 이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수단적 교육열은 일탈적 체험과 오락관계적 체험 활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국내가족여행의 체험 활동은 부모가 추구하는 교육열과 가치관에 따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모의 교육열에 따라 본질적인 교육열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체험활동영역에 따라 수단적 교육열을 강조할 것인가 등 세분화된 체험 프로그램의 목표설정과 실행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2개의 교육열이 국내가족여행의 체험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본질적 교육열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방향을 위한 제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동구와 수성구에 위치한 각각 1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표본의 지역적 한계성이 존재하며, 일반화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성별에서 남녀의 응답율이 14.2%와 85.8%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교육의 주체로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표집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에 대한 세밀한 척도가 개발되어야 하며, 체험활동 영역에 대한 평가가 실제 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길미경(2004). 학부모의 교육열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원(2009). 개인가치와 교육열이 교육관광상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허용덕(2015). 체험경제 이론을 이용한 축제 경험이 즐거움과 만족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14(1), 5-17.
- 김기완·김남조(2007). 체험관광 구성요인 분석: 서천군 금강 하구둑의 탐조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2(2), 153-172.
- 김승리·인옥남(2014). 도보관광의 체험요소(4Es), 만족도, 재방문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9(5), 99-107.
- 김양분·임현정·신혜숙(2009).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III): 일반계 고등학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25.

- 김영주(2004). 문화관광지의 교육적 체험이 관광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화 · 이인효 · 임진영(1994).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화(2004). 부모의 교육 참여와 자녀의 영재성과의 관계 연구: 부모 교육참여 측정도구 개발을 통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철원 · 윤혜진(2006). 한국인의 가족주의와 자녀교육열이 축제 결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0(3), 79-95.
- 김현 · 한은경(2014). 영상콘텐츠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애착과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지브리스튜디오 영상콘텐츠에 대한 간접 체험을 중심으로, *CONTENTS PLUS*, 12(3), 103-120.
- 김희복(1992). 한국인의 교육열 탐색: 부산지역 고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논문집*, 11(3), 289-331.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국민여행실태조사*.
- 박다례(2010).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내 어머니 교육열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 강주연 · 이수진(2006). KEDI종합검사도구 개발 연구(II): 가정특성과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6-25.
- 서근원(2008). 교육열의 의미에 관한 한 해석-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해서-. *교육인류학연구*, 11(1), 177-201.
- 서덕희(2002). 가정학교(homeschooling) 실천의 교육적 의미: 부모들의 삶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5(1), 119-152.
- 송재일 · 손대현(2004). 지역축제 방문자의 자녀교육열에 따른 행사프로그램 만족 차이 연구. *관광 · 레저연구*, 16(2), 71-84.
- 송화성(2005). 라이프스타일이 농촌 어머니 자원 선호 및 농촌관광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미옥(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 안현영(2015). 부모의 교육열이 국내여행의 체험 속성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30(6), 175-192.
- _____ · 황정주(2015).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에 따른 국내가족관광의 체험에 대한 형태분석: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북아관광연구*, 11(2), 127-147.
- 양봉석(2006). 문화관광지의 관광체험과 고유성, 관광만족의 관계연구. 동아대학교 대

- 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희·한대동(2009).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과 열망에 관한 이해. *열린 교육연구*, 17(3), 127-148
- 윤정혜·나영미(1999).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이 사교육비 지출여부와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비자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369-395.
- 이기석(2013). 학부모의 학교교육열 행동 특성 분석: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두휴(2008). 자녀교육지원활동에 나타난 학부모 문화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8(3), 135-156.
- 이연화(2011). 축제 체험 마케팅이 축제 브랜드자산, 브랜드태도,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각(2000). *교육열의 개념 재정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2003). *교육열 올바르게 보기: 그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서울: 원미사.
- _____. 김기수(2005). *교육열 개념의 비교와 재정의. 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교육열: 해부와 대책*(pp. 13-44). 서울: 하우.
- 이지은(2001). 청소년의 관광의사결정과정 참여에 따른 관광의 교육적 효과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태희·김지희·윤설민(2012). 테마파크에서의 고객 체험이 신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의사에 미치는 영향: Pine과 Gilmore의 체험(4Es)요인을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13(1), 57-81.
- 전귀연·김미성·하동현(2010). 관광객 체험이 체험품질, 체험만족 및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5(2), 271-292.
- 조성민(2001). 교육열의 내재적口외재적 동기와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태도.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 은(2003). 사회이동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욕망: 세계화, 교육열 그리고 학부모. 제 20차 KEDI교육정책포럼. 한국 학부모 교육열의 재조명. *연구자료 RM 2003-22*, 32-46
- 조혜영·최원기·이경상·Nancy Abelmann(2007). 청소년들은 어떻게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되는가?-미국 소도시 유학생들의 사례. *청소년학연구*, 14(4), 115-143.
- 최양숙(2005). 비동거 가족경험: 기러기 아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 하동현(2009). 대구 경북 외래 관광객의 체험이 체험의 즐거움, 체험만족 및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Pine과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Experience Economy)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4(5), 359-380.
- _____ (2012). 관광객의 체험이 즐거움, 감정적 애착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경주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1(5), 255-275.
- 한일미래정책연구원(2009). *교육을 주제로 한 관광상품화 방안*.
- 한숙영 · 엄서호(2005). Pine과 Gilmore의 체험영역 모델에 관한 검증: 한산모시축제 체험활동 참가자 만족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9(2), 131-148.
- 현주 · 이재분 · 이해영(2003).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Kao, G. & Tienda, M.(1998). Educational Aspirations of Minority Youth.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06(3), 349-384.
- Oh, H., Fiore, A. M. & Jeong, M(2007). Measuring Experience Economy Concepts: Tourism Applica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46(2), 119-132.
- Pine, B. J., II & Gilmore, J. H.(1998).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 *Harvard Review*, July-August, 97-105.
- _____ (1999). *The Experience Economy: Work is Theatre & Every Business a Stage*, Boston: HBS Press.
- _____ (2000). Satisfaction, Sacrifice, Surprise, *Strategy & Leadership*, 20(1), 18-23.
- _____ (2002). Customer Experience Places: The New Offering Frontier. *Strategy & Leadership*, 30(4), 4-11.

접수일(2016년 08월 13일)

수정일(2016년 09월 09일)

게재확정일(2016년 10월 28일)

3인익명 심사필

Influences of the Educational Aspir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Parents on the Domestic Family Trips

Ahn, Hyun-Young* · Lee, Geol**

Abstract

This study is to grasp the influences of educational aspirations of elementary school parents on domestic family trips. These are the results.

First, analyzing the pattern of domestic family trips, individual free trips were the most common. The number of trips was one to three times, for a duration of one night, and the sources of information were portal sites and the community.

Second, the educational aspirations of parents were classified under two factors, essential educational aspirations and instrumental educational aspirations. The experiences of domestic family trips were classified under four factors, educational, aesthetic, deviant and entertainment-related.

Third, to verify the hypothesis about the essential educational aspirations of parents and the experiences of domestic family trips, regression analysis was undertaken. Essential educational aspirations were analyzed to have positive influences on educational, aesthetic, deviant and entertainment-related experiences.

Fourth, instrumental educational aspirations were analyzed to have positive influences on deviant and entertainment-related experiences.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examining theoretical structures between the educational aspiration of parents and the experiences of domestic family trips.

Keywords: educational aspirations of parents, essential educational aspirations, instrumental educational aspirations, educational, aesthetic, deviant, entertainment-related, 4E's, domestic family trips

* Lecturer, Dept. of Hotel Tourism, Daegu University, Korea. E-mail: goodbye66@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Hotel Tourism, Suseong University, Korea.
E-mail: lg7134@sc.ac.kr